

HAMADRYA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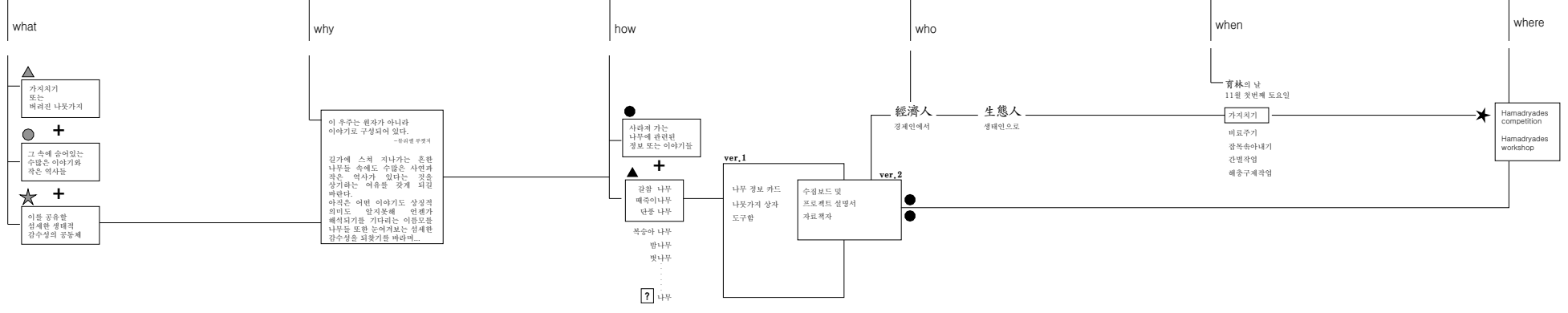
이야기가 우리를 바꿀 것이다.



하마드뤼아테스는 그리스어로 '나무와 함께 하는 이' (hama<sup>함마</sup>는 함께한다, drus<sup>드루스</sup>는 나무, ades<sup>아데스</sup> 그리스어의 복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나무의 요정입니다. 하마드뤼아스는 나무에 갇혀 있다가 나무가 죽으면 함께 죽는다고 합니다. 932120은 하마드뤼아테스 요정의 나이입니다.(외부로부터의 피해가 없다면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제 오늘날의 숲속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로마의 숲의 신 실바누스 디오니소스의 스승이자 예언자이기도 했던 실레노스. 자연계의 억제되지 않는 생명력의 화신으로 여겨졌던 사튀로스는 점차 술주정뱅이 괴물로 변해갔고 공포의 대상에서 동화의 이야깃거리로 전락해간 그들 또한 이제 숲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렇다면 숲의 마술적인 힘을 구현하고 있던 거인 철의 한스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죽음을 넘어,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죽음을 거쳐 삶을 통찰하려 했던 예사람들의 꿈과 예지가 깃들인 숲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어디에서 그러한 숲을 발견하게 될 것인가?

김영래 저 『편도나무야, 나에게 신에 대해 이야기해다오』 중에서



what

- ▲ 가지치기 또는 비러린 나무가지
- + 그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이야기와 작은 영사들
- ★ + 이를 공유할 선택한 생태적 감수성의 공동체

why

이 우주는 원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유리병 밖에서

길가에 스쳐 지나가는 흔한 나무를 속에도 수많은 사연과 작은 영사가, 일하는 모습 상기하는 이유를 찾게 되길 바란다.  
아직은 어떤 이야기도 상상적 의미도 알지못해 연결가 확인되기를 기다리는 이쯤으로 나무를 보면 눈여겨보는 심세한 감수성을 되찾기를 바란다...

how

- 사라져 가는 나무에 관련된 정보 또는 이야기들
- + 관찰 나무
- + 매죽이나 나무
- + 단종 나무
- 꼭숨아 나무
- 밤나무
- 갯나무
- ...
- ...
- ?
- 나무

ver.1

나무 정보 카드  
나무가지 상자  
도구함

ver.2

수집보드 및 프로젝트 설명서  
자료책자

who

經濟人 生態人  
경제인에서 생태인으로

when

育林의 날  
11월 첫번째 토요일

가지치기  
비료주기  
관목축아내기  
간벌작업  
해충구제작업

w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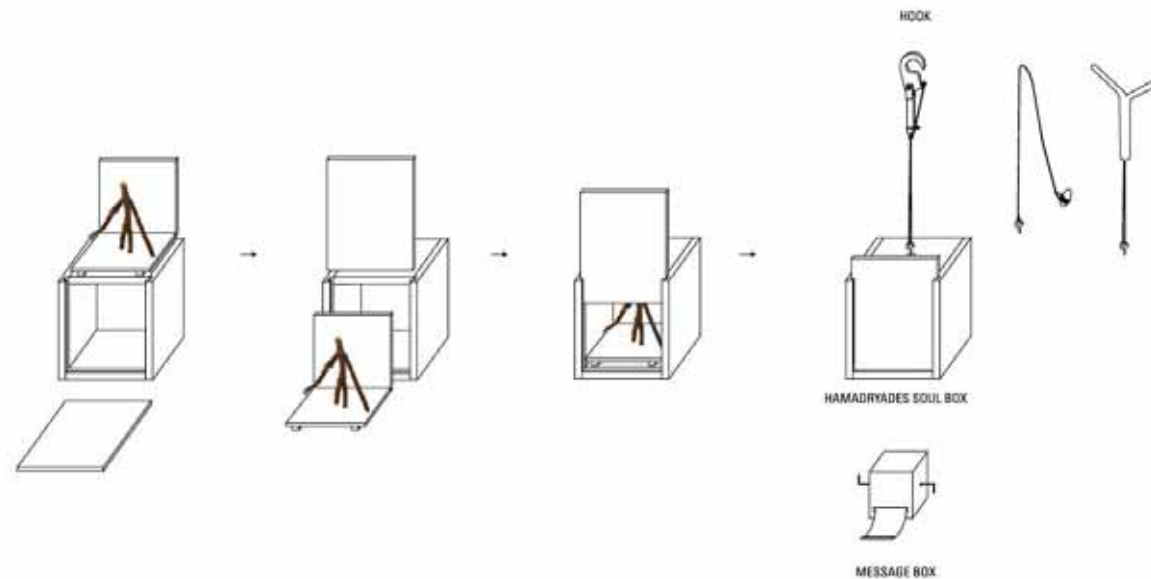
Hamadryades competition  
Hamadryades work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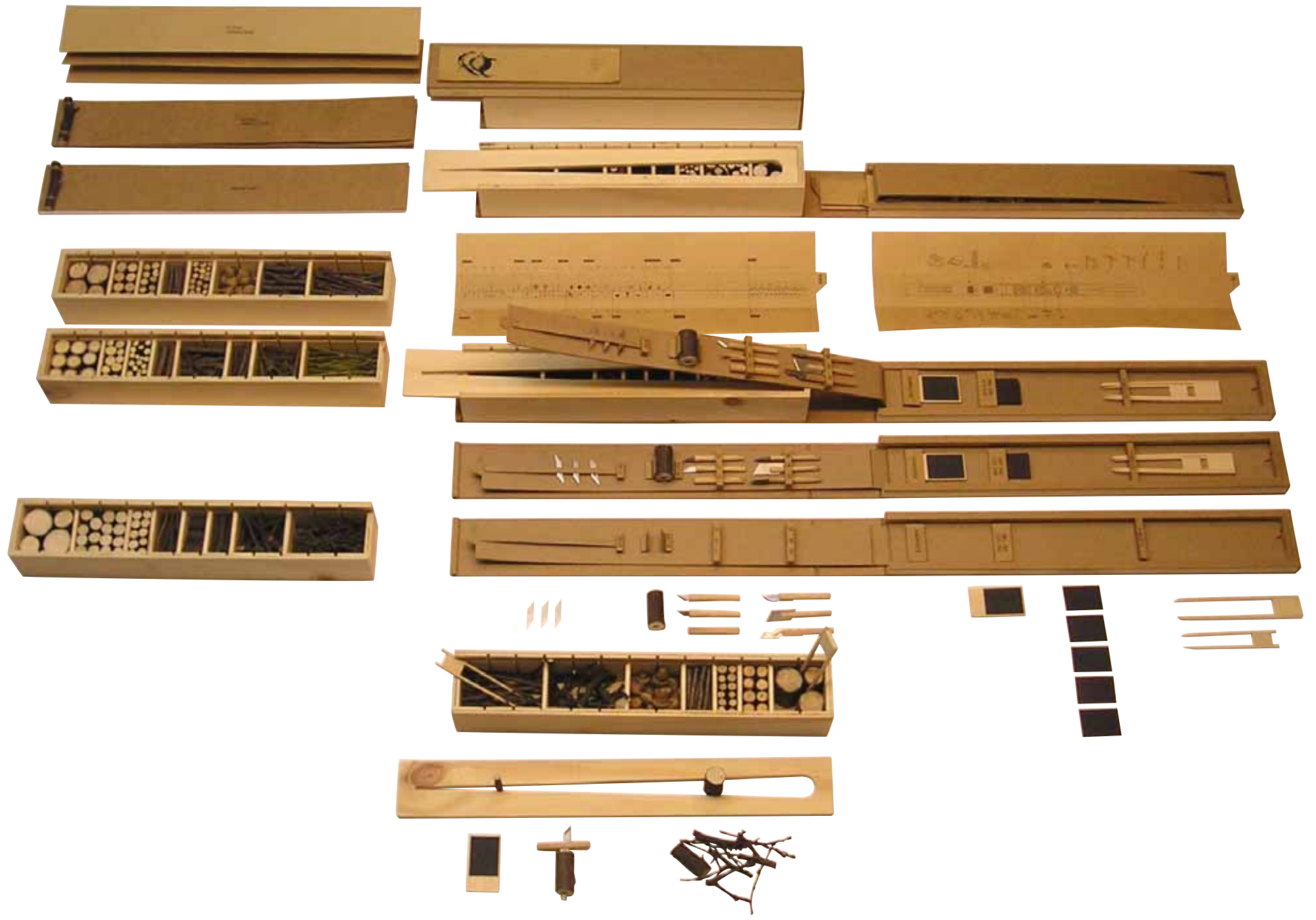
# Hamdryades Campaign

## program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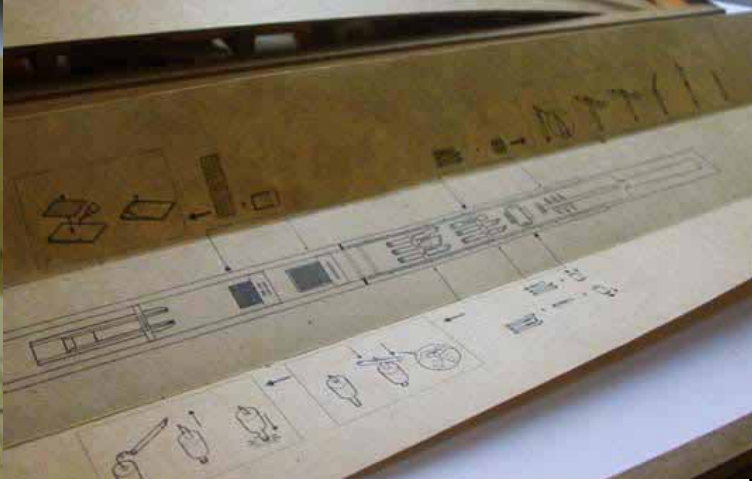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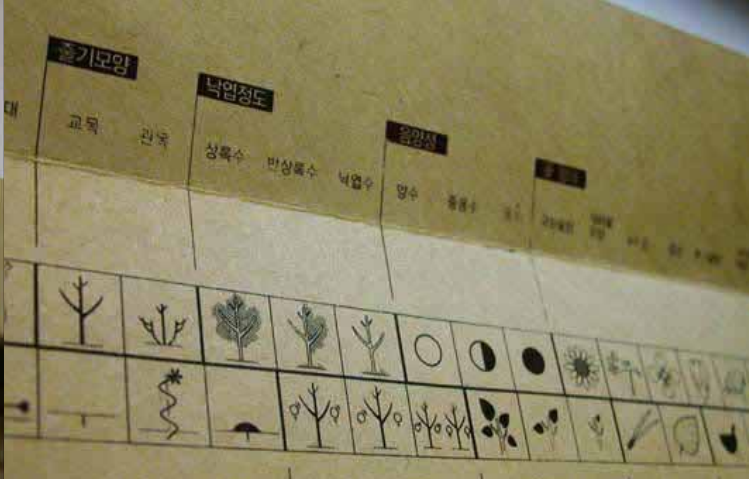
- 01. 이봄모를 나무들의 수호신이 되다.
- 02. 이봄모를 나무들이 숨어있는 경로를 알려내다.

### Hamdryades 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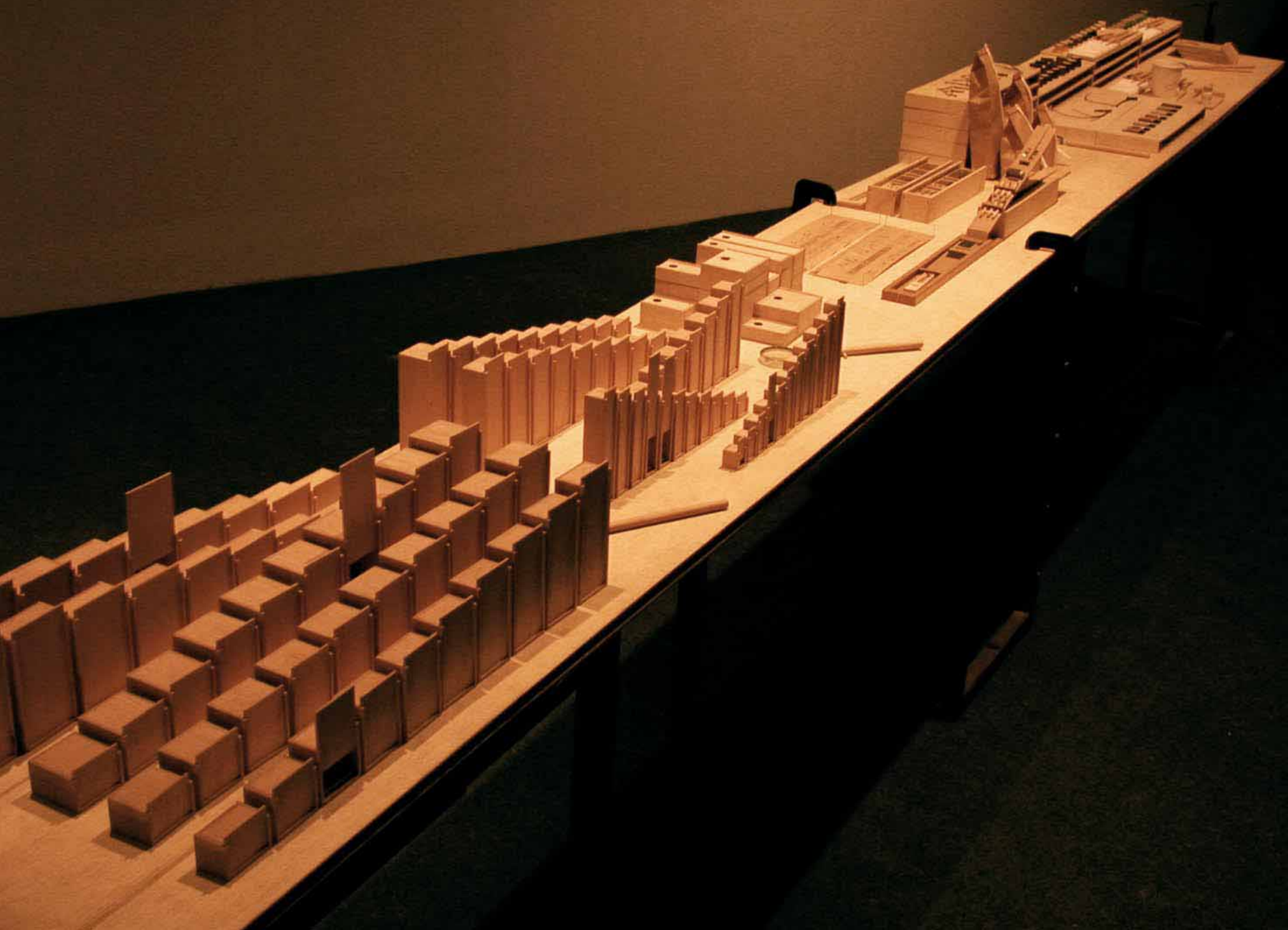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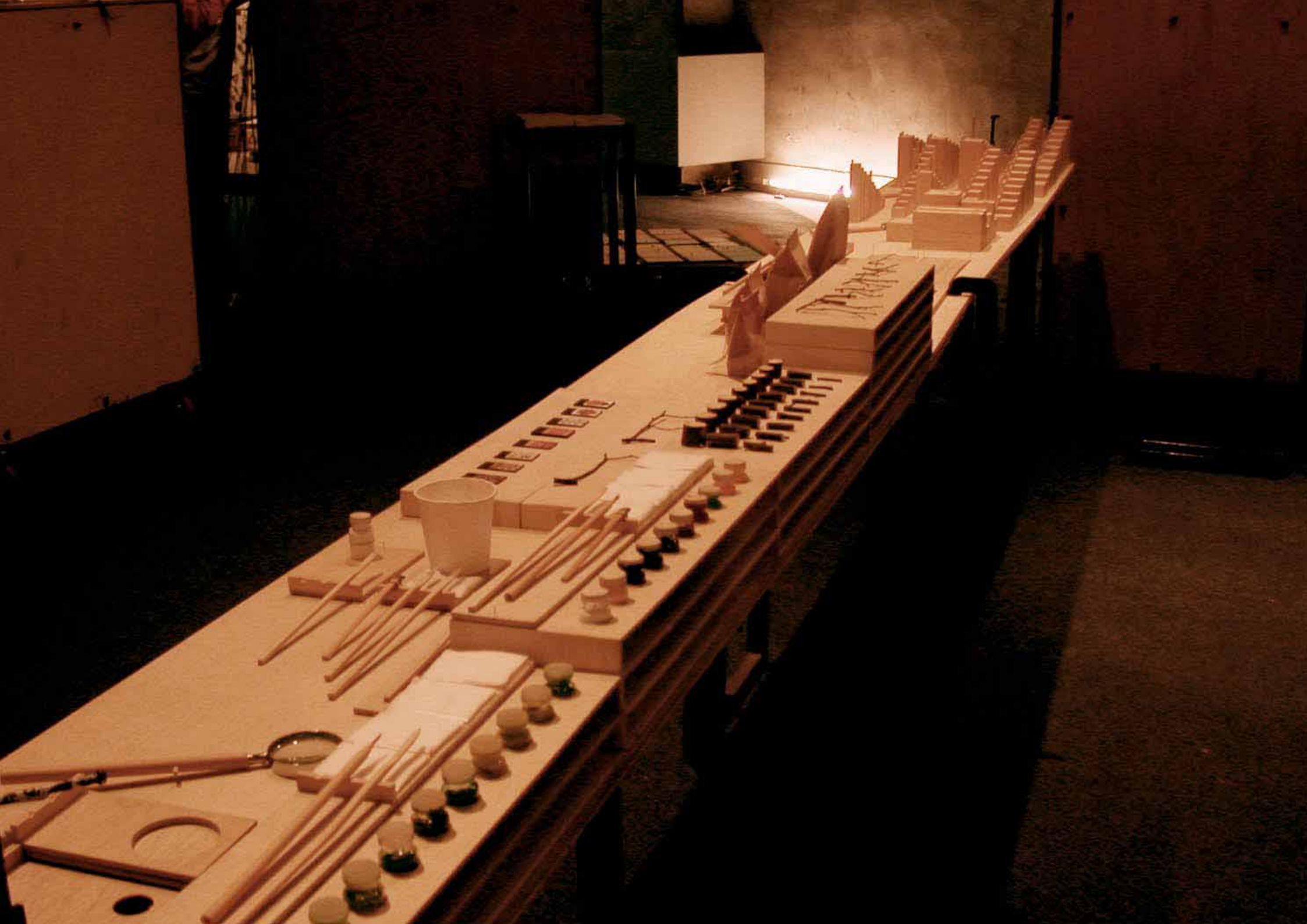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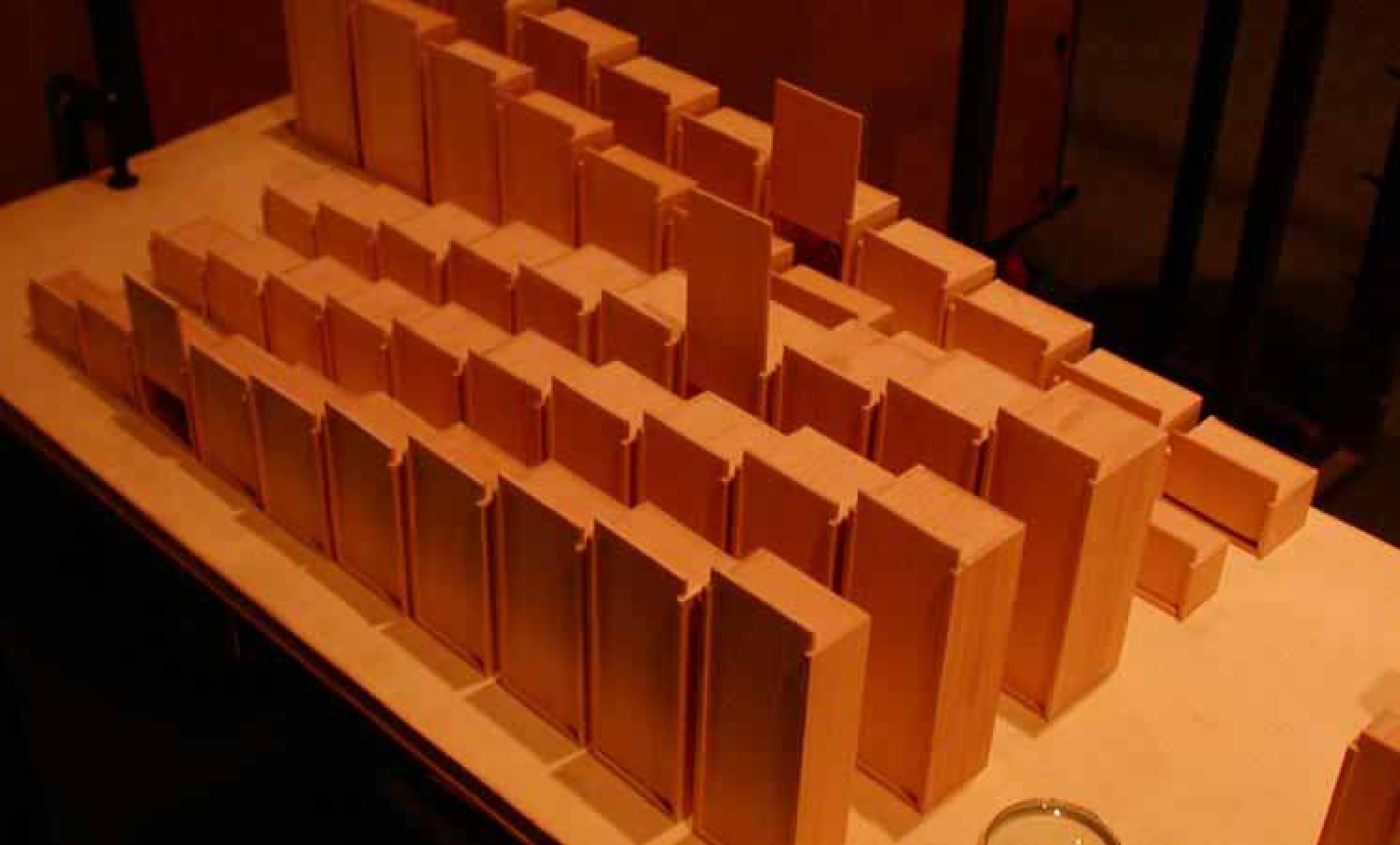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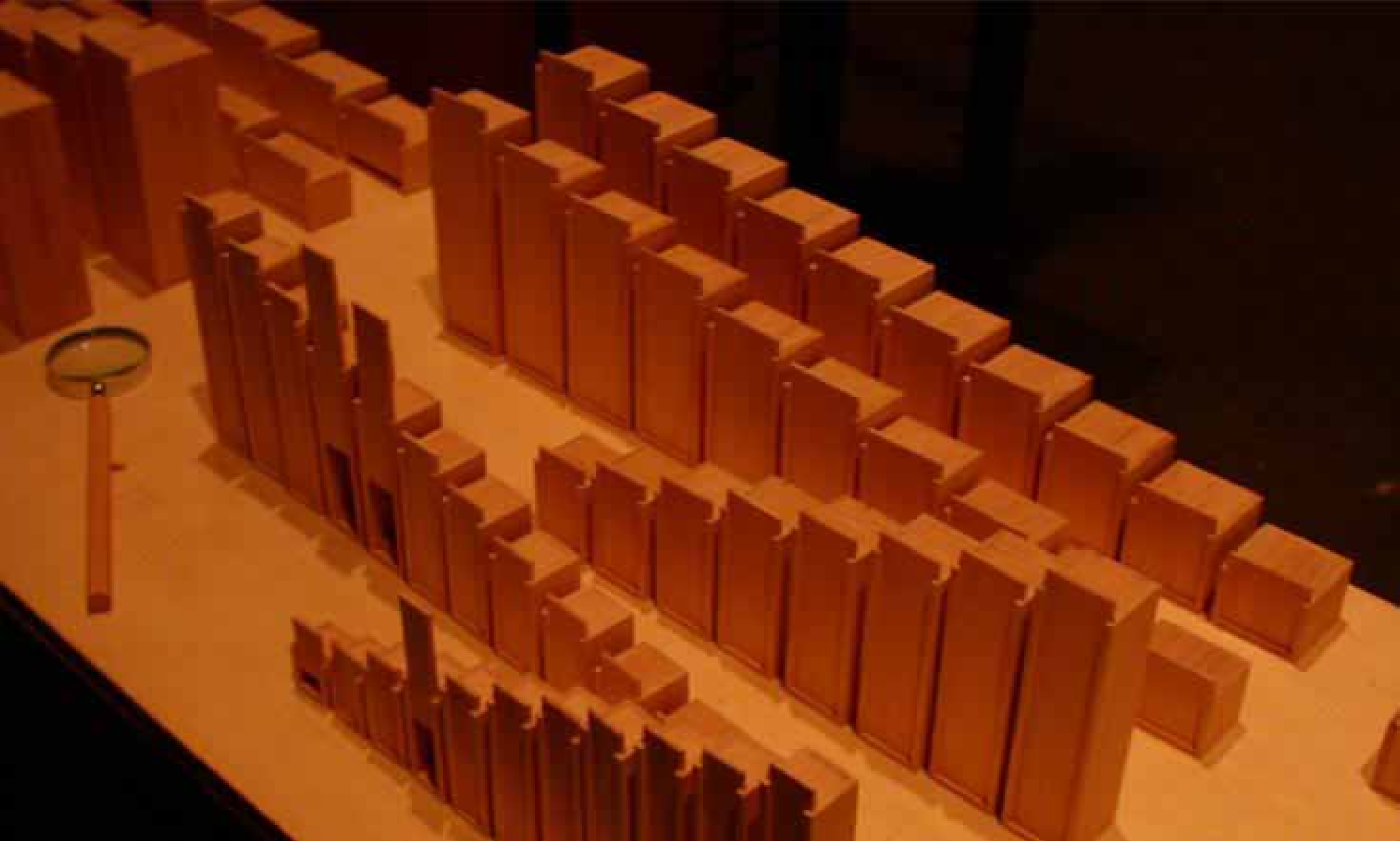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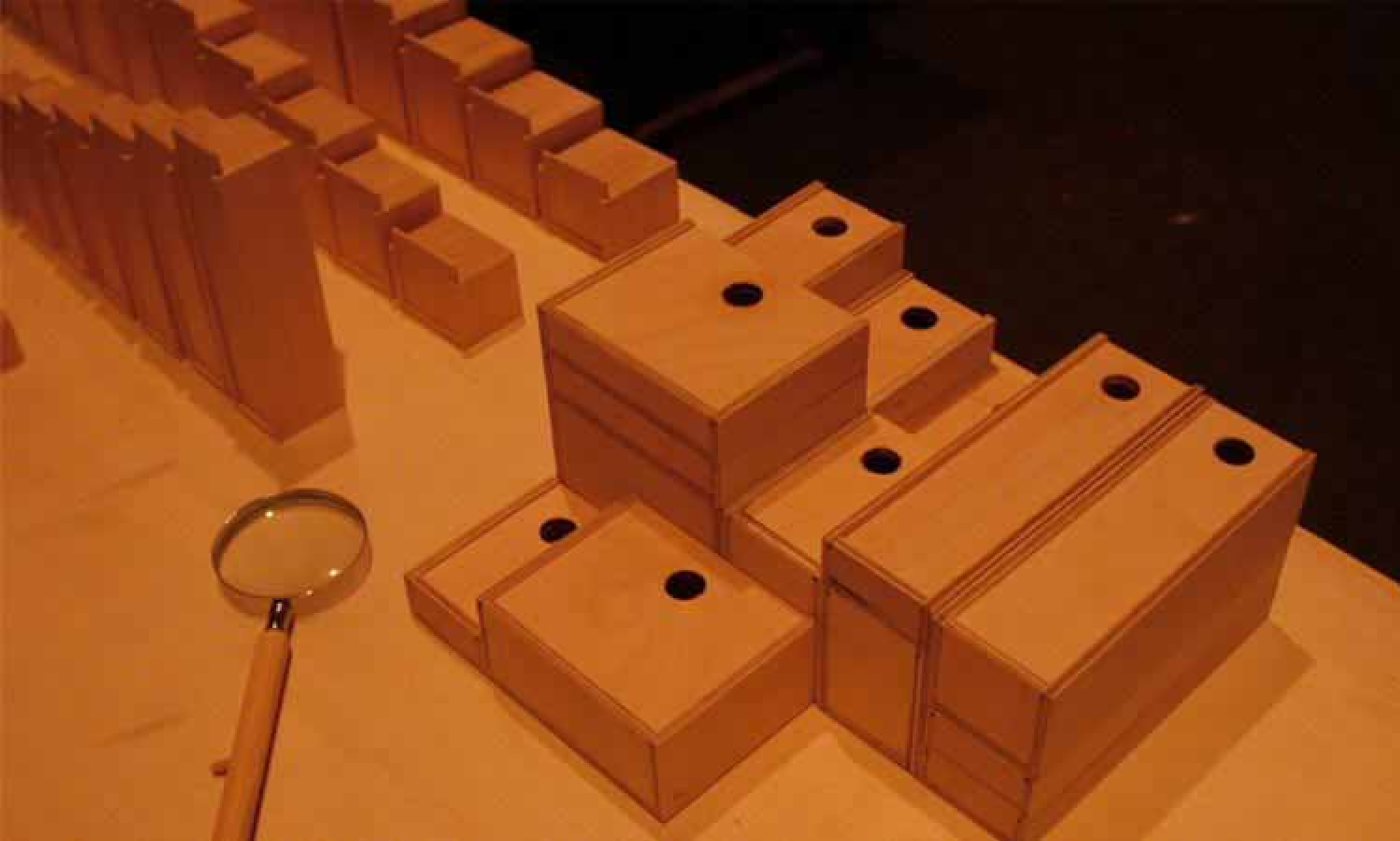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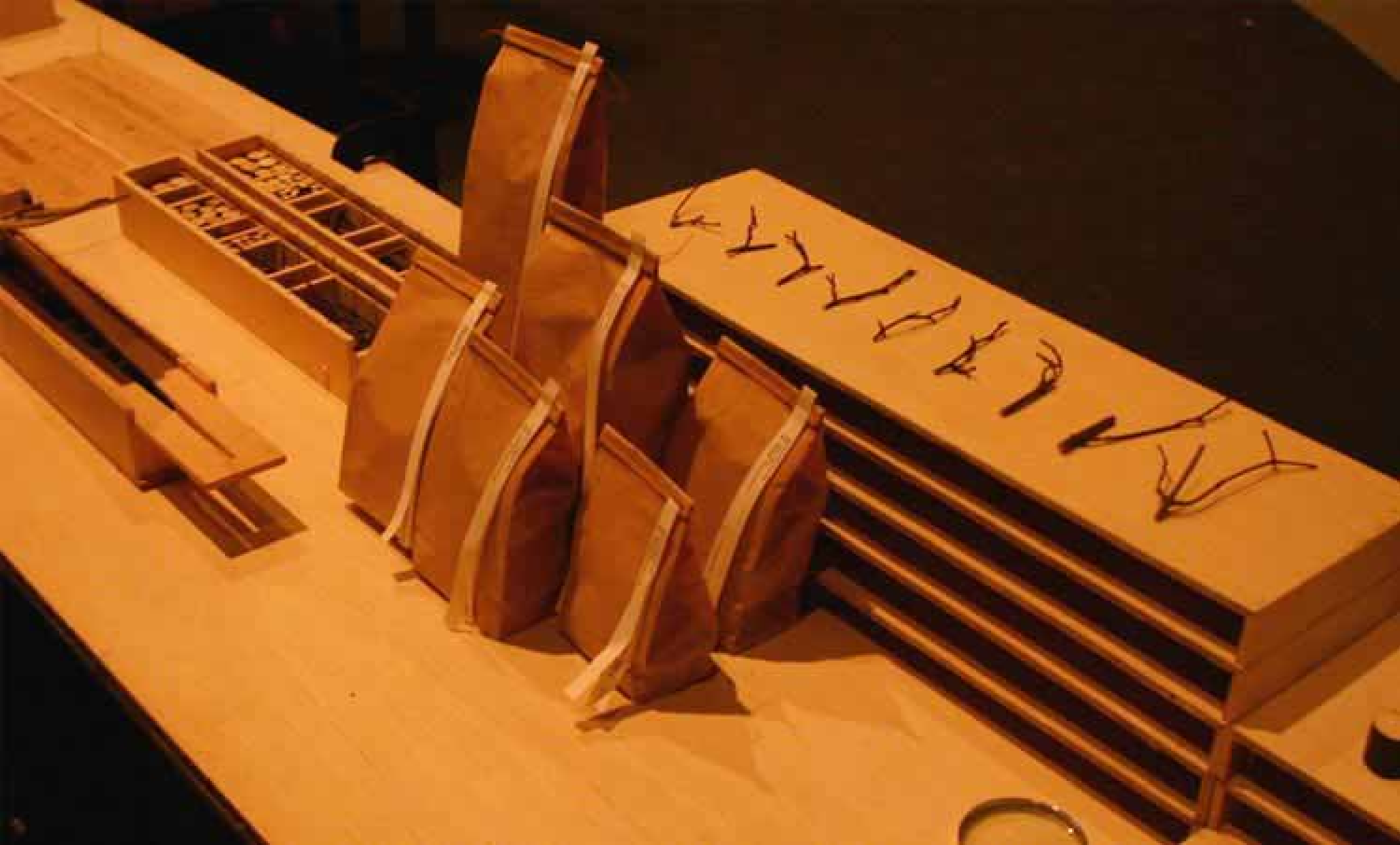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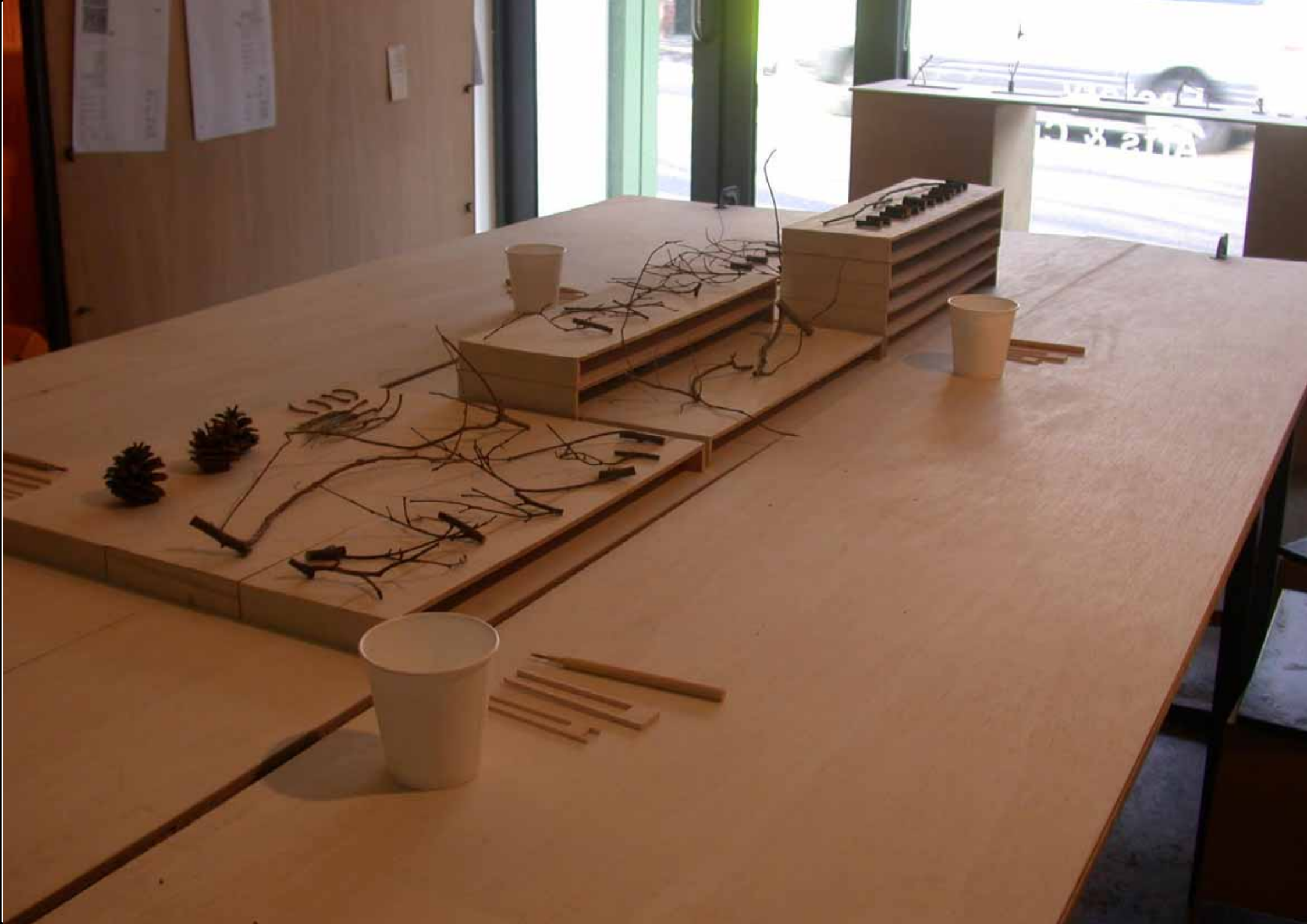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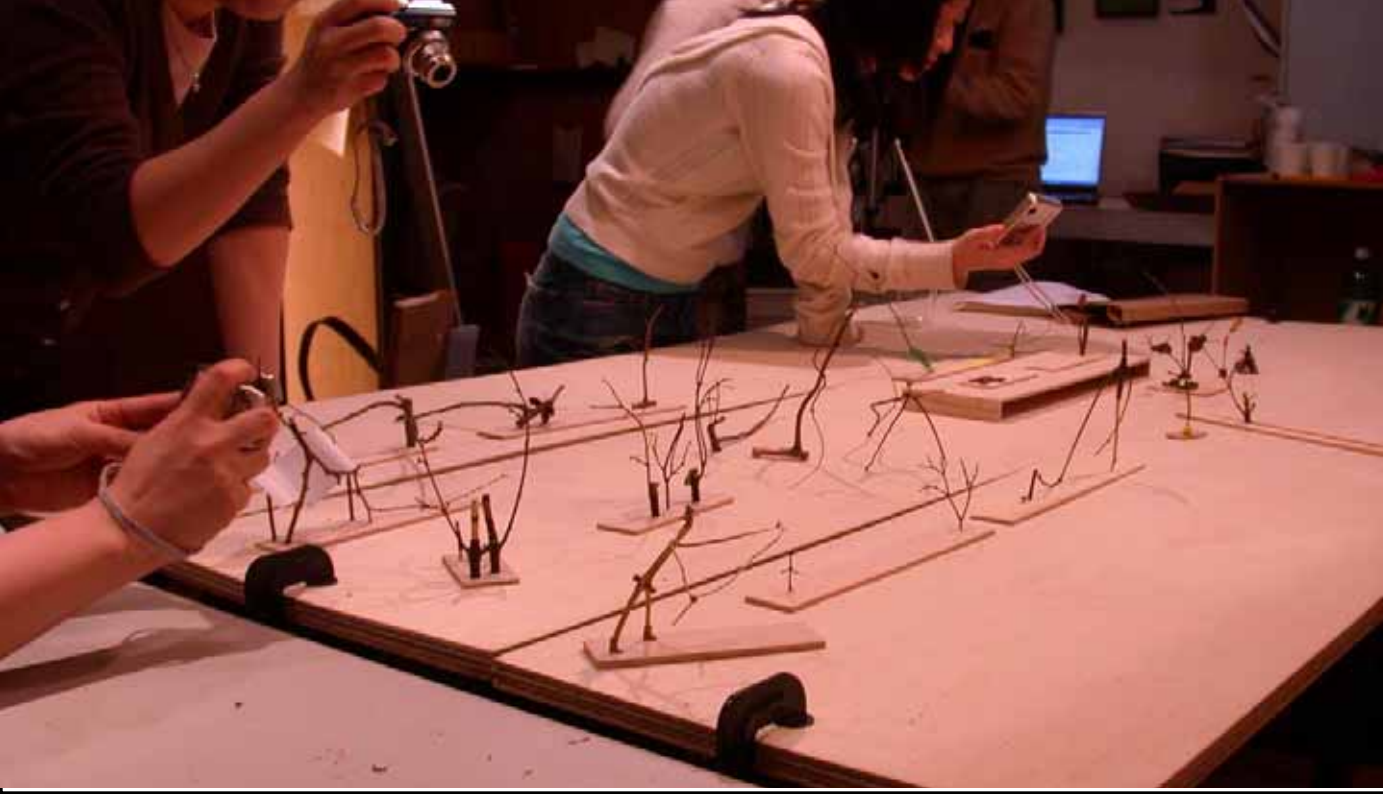














떡갈나무  
Quercus spec  
Fagaceae

북반구의 온대 기후 지역에서 자라는 280 종의 떡갈나무는 모두 최초의 인도게르만 족이 거주했던 지역에서 번개와 천둥의 신들에게 바쳐졌다.

떡갈나무는 종종 번개에 맞고도 살아남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 나무는 아주 이른 시기에 장수, 강함,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떡갈나무 목재를 불멸의 것으로 간주하였고,

폭풍을 견뎌 내는 이 나무의 힘에 놀랐다.

또한 천천히 자라는 이 나무가 인류의 삶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나이를 먹었다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민족에게 떡갈나무는

인내력, 질감, 힘찬 남성다움의 표상이었다.

‘flower & tree’ 본문중 떡갈나무의 한부분 -



호랑가시나무  
Ilex spec  
Aquifoliaceae

상징 \_ 행운 . 악으로부터의 보호 . 배려 . 영생 . 사티로스 축제와 사육제  
표지 \_ 드루이드 사제 . 그리스도

늘 푸른 잎을 지닌 큰 수목이 중부 유럽에 뿌리를 내린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

이로 인해 이곳이 원산지인 서양호랑가시나무는 경이와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

겨우살이나 떡갈나무와 마찬가지로 호랑가시나무는 게르만 . 앵글로색슨 , 켈트족에게서 신성시되었다 .

진녹색의 가죽처럼 딱딱한 잎 , 더구나 새빨간 장과는

한 해 중 가장 음울한 시기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상징으로 여겨졌다 .

그리고 겨울에도 푸른 이 식물은 언제나 불멸 , 영생의 상징이며 ,

겨울의 모든 축제는 이러한 나무로 장식된다 .

로마에서는 사티로스 축제 . 기독교권에서는 크리스마스 , 사육제 , 부활절에 쓰인다 .

' flower & tree ' 본문중 호랑가시나무의 한부분 -



복숭아 나무 - 손오공



물푸레나무  
Fraxinus spec  
Oleaceae

상징 : 세계의 나무, 최초의 인간, 무장, 구원, 부부의 기쁨 .

표지 : 포세이돈, 네메시스, 마르스, 오딘, 게르만 신들의 재판, 위그드라실

게르만 신화에서 세계 물푸레나무는 위그드라실이라고 언급.

위그드라실은 '위그의 과발꾼' 이라는 뜻인데, 위그는 가장 높은 신이며

모든 신의 아버지인 오딘 ( 게르만 신화의 가장 폭력적인 신족의 대표신 ) 의 다른 이름이다 .

오딘은 신들과 거인들만이 땅 위에 살았던 시절에 헤니르, 로두르와 함께 강을 따라 가고 있었다 .

그들은 강가에서 두 개의 나무 줄기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물푸레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오리 나무였다 . 그들은 그것으로 최초의 인간인 아스크와 엠블라를 창조했다 .

오딘은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고, 헤니르는 정신력과 언어를, 로두르는 나머지 감각을 선물했다 .

최초의 남자로 조각된 그 목재처럼 최초의 남자는 아스크 ( 물푸레나무 ) 라 불렸다 .

게르만 신화에서 모든 인간들은 이 부부에게서 유래한다 .

' flower & tree ' 의 본문중 물푸레나무의 한부분 -

p.s '정신력과 언어적 감각'





소나무  
Pinus spec  
Pinaceae

상징 \_ 생명력 . 적응력 . 성실과 용기 . 장수 . 행복하고 오래된 부부 . 우정

소나무는 대나무 . 꽃을 피우는 매화나무와 더불어 유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중국에 대한 표현이다 .

이 세 가지 식물은 '겨울의 세 친구' 의 상징이다 .

소나무와 대나무는 항상 푸르기 때문이고 매화는 봄이 깨어나는

아주 작은 표시에도 즉각 꽃을 피우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

일본문화에서도 소나무의 상징력은 적지 않다 .

유럽의 신화에서 필레몬과 바우키스가 노년까지 행복한 부부의 표상이라면

일본에서는 요와 위바가 그러하다 .

그들은 소나무 아래에 사는데 , 같이 술값을 쓸어모으는

그림은 행복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부부의 상징이다 .

이 그림은 결혼식 선물 목록에도 빠지지 않는다 .

' flower & tree ' 의 본문중 소나무의 한부분 -



실편백나무의 기하학적인 형태는 배열 또한 기하학적으로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하학적 배열 때문에 주위를 감싸고 있는 장중한 어둠의 인상이 강화된다.

실편백나무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을 보아라.

골짜기의 풀밭에서, 그리고

인적없는 가로수길에서

우리를 무시하면서

돌과 같은 몸짓을 한 형상으로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네.

- 릴케 -

실편백나무

*Cupressus sempervirens*

Cupressaceae







게르만 민족에게 야생 배는 심오한 종교적 의미를 가졌다.

대부분 배나무들은 경작지에 각각 15 미터 높이까지 되는

호리호리한 타원형의 우람한 보호수로 서 있었다.

배나무는 다른 대부분의 과실수보다 훨씬 오래 살고

종종 신비스러운 겨우살이의 숙주나무가 되기도 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신이나 불가사의한 용이 사는것을 보았다.

‘flower & tree’ 의 본문중 배나무의 한부분 -

배나무

*Pyrus spec*

Rosaceae



